



Monthly Customs Newsletter



【 대표관세사 인사말 】

얼마전 새해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왔습니다.

2월은 설연휴 기간이 있어 한해의 풍요를 바라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최대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년에 세운 계획들 모두 이루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곧 봄이 올 듯 따뜻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한파가 닥치기도 하네요. 아직은 겨울이지만 다가오는 봄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2월 한달도 좋은 일,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법인 청우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해외여행자 및 해외 직구 통관제도 개선

관세청은 지난해 9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인상, 해외여행 확대 등을 반영해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를 18년 만에 1인당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월 1일부터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여행자(2년 내 2회 이상)는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는 반면,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여행자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를 낮춰주기로 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대행수출(해외 역직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을 통한 수출대금 수령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면제해 「외국환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지난해 시행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의 월말 일괄납부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낮춘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중 수출입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영세기업은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 시 무(無)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 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세부와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돼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결과 통지일부부터 30일 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관세동향 】

▶ 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올해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가 우려돼 전문인력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해 9개 세관(부산, 인천, 평택, 군산, 목포, 동해, 울산, 광양, 마산)을 통관지 세관으로 지정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내 담뱃값 인상으로 밀수 유인이 높아져 관세청 '수출입관리시스템'과 행정자치부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통관 전후단계의 밀수를 막을 예정이다.

세제 합리화방안 시행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다른 범칙과의 형량 비례를 고려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 외에도 수입농산물 등의 저가신고에 따른 국내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 산정 시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배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통관·물류제도 개선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할 때 모든 난 별로 중복해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했고, 일반인의 세관공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제도를 이미 지난해 폐지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입신고 수리 후 발행하는 신고필증의 발행내역과 정정이력을 관리해 진위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보세구역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 관세동향 】

▶ 중국 환경규제 무시했다간 “큰 코 다쳐요”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둔 우리 중소 제조기업은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만발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최근 심해진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 역시 신규진출 및 현지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퇴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환경목표 강화 기조로 중앙정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설비투자비나 오염배출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져 상당한 경영 위험요소로 작용하는데,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보고서는 무협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예로 들며, 중국의 환경규제 집행 강도는 눈에 띄게 높아져 정기점검뿐 아니라 불시점검 횟수도 대폭 늘었고, 엄격한 기준의 적용으로 처벌수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인맥과 같은 관시(關係)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환경규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주민도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져 미미한 사안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민원제기 사례가 잦고, 환경안전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안전 설비 추가, 친환경연료 사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에 따른 손실정도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은 진출에 앞서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위험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세동향 】

▶ 담배도 사치품?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부과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일까? 정부는 담배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해 1월 1일부터 담배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갑에 2,500원 하던 담배가격도 4,500원으로 꺾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담배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담배 수량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정했다. 애초 정부는 담배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럴 경우 값싼 수입산 담배가 대거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종량세로 방향을 틀었다.

이로써 꺾련은 20개비당 594원, 파이프담배와 각련은 각각 1g당 21원, 엽꺾련에는 1g당 61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고,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물담배는 1g당 42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씹거나 머금은 담배는 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에는 1g당 15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선별적으로 세율을 부과하는 국세다. 통상 낭비와 사치를 억제하고 국민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간접세로, 주로 보석류 등 '사치품'에 적용하면서 일종의 '사치세'로서의 기능을 해왔다.

- * 씹는 담배 :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한 담배
- * 머금은 담배 :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 가공해 포장한 담배가루, 니코틴을 포함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 냄새 맡는 담배 : 특수 가공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 관세동향 】

▶ 2015년 유럽의 변화, '3T'에 주목하라!

2015년 이후 유럽의 제도 변화는 3T로 요약된다. 최근의 유럽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외부의 진입은 막으면서 과도한 FTA로 시장을 넓히고(Trade), 역내 통합을 가속화해 하나의 유럽(integration)이라는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최근에 KOTRA가 발간한 '2015년 이후 유럽 각국의 주요 제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내년 중 비관세장벽을 설치·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보건, 에너지, 환경 분야 등의 각종 규정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 6월부터는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 규정을 혼합물 및 완제품까지 확대 적용하며, 가정용 오븐, 히터, 온수기 등도 전기·전자제품의 에너지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 또한 올 9월부터는 경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인 'EURO 6'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EU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캐나다, 베트남과 연내 타결 및 발효를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EU-중국 투자협정(BIT)'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유럽 기업의 對중 투자진출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KOTRA는 EU의 통상강화 기조는 유럽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해 우리 기업의 FTA 선점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산업계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막바지에 접어든 유럽 통합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통합의 움직임은 조세 및 노동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EU는 내년부터 전자 공공조달(e-Procurement)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며, 세계 최대 규모인 EU 공공조달시장의 통합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간호사,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엔지니어 등 전문 직업군에게 전자코드를 부여해 EU 회원국 내 어디서든 전문 자격을 인정하는 '유럽직업카드(EPC)'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KOTRA 최현필 브뤼셀무역관장은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우리 기업은 유럽시장의 높아지는 무역 장벽을 극복해 통합돼 가는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는 한편, 유럽 기업의 다른 FTA시장 진출 확대에 대비해 판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바짝 따라붙은 중국의 제조업기술, 대응책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급격히 둔화했는데, 주력 산업의 수출 기여율 급락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대경제연구원(HRI) 경제연구본부는 1월 19일 발표한 '수출 시장 점유율로 살펴본 중국 제조업의 위협' 보고서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별 경쟁력을 중국과 비교·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IT,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석유제품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브랜드가 없는 중국보다 우리 경쟁력이 비교 우위에 있으나, 자동차 부품은 경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IT 산업은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축적하며 IT 산업 전 부문에서 우리와 경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수출에 집중하는 사이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인 시스템반도체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분야의 수출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증가하면서 양국 간 수출시장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 산업에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시장 점유율은 1위지만, 최근 중국의 수주 규모가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등 양국 간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으며, 석유화학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9위로 2위인 중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철강 산업은 양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수출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품목, 중국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우리나라의 기계 산업 경쟁력은 정체됐지만, 중국은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어 수출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수출시장 점유율은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양국 모두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수출시장 점유율을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IT 산업은 시장경합이 치열하고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산업은 경쟁 열위로 시장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HRI는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핵심 신소재·부품, 융복합 신기술 제품 등 신성장 제조업을 육성해 추적이 어려운 신규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산업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세동향 】

▶ 온라인 해외 직구, 키워드는 '신속'과 '간편'

지난해 말 전 세계 블랙프라이데이 광풍을 일으킨 주역인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이 우리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했다.

온라인 직구의 최대 시장인 미국은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물류대행사와 안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며, 중국도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라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온라인 구매 시 관세와 증치세 등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통관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확대는 물론, 세계적인 물류회사가 속속 중국에 진출해 탄탄한 물류망을 구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도 온라인 구매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지역은 한류열풍이 높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무관세 혜택이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 기업 수출시장으로서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의 인기품목은 서적, 음반, 의류, 신발 등이며, 유럽지역에서는 여행 및 문화상품, 일본과 동남아지역에서는 화장품 등이 인기다. K-POP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아이돌 음반 공동구매 등 한류상품의 구매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간이통관, 무관세 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OTRA 관계자는 "온라인 해외 직구시장을 우리 기업의 수출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물류시스템이 관건"이라며, "단순 배송의 개념을 넘어 창고보관, 신속배송, 재고관리까지 포함해 반품과 환불요구, 보증 서비스까지 수용하는 광의의 물류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는 자국 언어로 된 상품소개와 신용카드 결제 대신 현금이나 휴대폰 결제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소량주문과 현금결제 방법 등 현지 요구에 맞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OTRA 양영은 통상지원총괄팀장은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 한류열풍, 탄탄한 IT 인프라는 글로벌 온라인 직구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매우 큰 장점"이라며, "정품 판매와 배송사고 없는 신뢰도 높은 사이트 운영, 우량 회원사 확보 등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갖추기 힘든 역량배양을 정부와 KOTRA 등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해외 직구, 사상 최대... 거래국가·상품도 다양해져

매년 크게 늘고 있는 해외 직구가 구매하는 상품과 거래국가도 더욱 다양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 직구 물품 수입이 1,553만 건, 15억 4,000만 달러로 또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다만 2011년 최고 57%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추세는 2012년 이후 점점 완화해 지난해에는 39%의 증가세를 보였다.

거래국가는 2010년 19개국에서 지난해 38개국으로 늘어나 더욱 다양해졌다. 국가별로는 미국(73%)에서 가장 많이 수입됐고, 중국(11%), 독일(5%), 홍콩(4%), 일본·영국(각 2%), 프랑스·뉴질랜드(각 1%) 등 이들 8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99%를 차지했다.

구매금액은 1회당 '50달러 초과 100달러 이하'가 37%로 가장 많았고, '50달러 이하'가 25%, '100달러 초과 150달러 이하'가 27%, '150달러 초과 200달러 이하'가 8%로 나타났다. 즉 총 구매금액이 200달러 이하가 전체의 97%로, 국내 소비자는 대부분 소액물품 위주로 물품을 구매했다. 1,0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물품은 전체의 0.3% 정도로 비중은 적었으나, 총 5만 2,000건 규모로 5년 전보다 76% 증가하는 등 전체 해외 직구 증가 수준(330%)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는 최근 세금을 내더라도 가격이 더 저렴하고 제품도 다양해 텔레비전, 휴대폰, 전열기기, 자전거, 운동기구, 의류, 신발, 시계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의류(19%)가 가장 많이 수입됐고, 건강식품(14%), 신발(13%), 기타 식품(11%), 화장품(11%), 핸드백·가방(8%), 완구인형(4%), 가전제품(2%), 시계(2%), 서적류(1%)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품목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통관유형별로 보면 목록통관은 의류(37%), 신발(21%)이,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거치고 수입된 품목은 식품류(43%)가 가장 많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통관정보 공개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면서도,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 배송지 결과 분석,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권고 등 감시단속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 및 환급률 일부 조정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의 2015년 적용 대상품목을 4,216개 품목으로 확정하고, 1월 5일 수출 건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는 중소기업이 수출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 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해주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올해에는 립스틱, 플라스틱 세면대와 설거지통, 지팡이 등 27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숄, 스카프 등 433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한편 FTA가 확대됨에 따라 관세가 무세인 원재료가 증가해 환급품목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에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만 30% 범위에서 감액했다. 단, 최근 3년간 환급신청이 없었던 일부 품목을 대상품목에서 삭제해 전체 품목 수는 지난해 4,260개보다 44개 줄었다.

이와 함께 과다환급을 막기 위해 최대 환급률을 지난해 수출액 1만원당 160원에서 150원으로 줄였다.

또 환급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10단위)에 여러 가지 물품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품목번호 그룹(HS 6단위) 내 다른 품목의 간이정액환급률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HS 7319.40 그룹 내 최대 간이정액환급품목인 '반도체웨이퍼 검사에 사용되는 핀(HSK 7319.40-2000)'의 간이정액환급률이 1만원당 70원일 때, '기타(HSK 7319.40-9000)'에 해당하는 품목은 같은 그룹(7319.40) 내의 최대 간이정액환급액인 1만원당 7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뉴스]

▶ 올해 TPP·RCEP 등 '메가 FTA 논의' 활발할 것

올해는 양자 FTA뿐 아니라 TPP, RCEP, TTIP, FTAAP 등 메가 FTA 추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미 협상을 타결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공식 서명 및 국내 절차를 빠르게 완료하면 우리나라의 FTA 발효는 15건, 52개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RCEP와 TTIP(美·EU FTA)는 올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 역시 올 상반기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TPP 협상 타결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 상반기를 넘기면 자칫 협상이 동력을 잃고 오랜 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한·중 FTA 타결이 이 같은 메가 FTA 추진의 새로운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협상진전이 어려웠던 한·중·일 FTA와 RCEP 등도 한·중 FTA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행보는 미국과 일본의 TPP 논의를 가속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라 당분간 메가 FTA 추진 논의는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美·인도 간 이견 해결로 지난해 11월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무역원활화협정(TFA)의 발효와 ITA(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의 타결 여부도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아울러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자유화협정(EGA) 등 주요 복수국 간 협정의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개정 GPA(정부조달협정)의 발효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끝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무역자유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對한 신규 무역제한 조치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2013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조사개시가 조치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연구원은 "올해는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FTA 발효 확대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무역업계는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FTA 뉴스]

▶ 한·캐나다 FTA 발효 캐나다 바이어 우리 제품 문의 쇄도

올 1월 1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 바이어는 관세가 인하되는 우리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바이어는 우리나라産 양말, 가죽 제품의 관세인하 등 가격조건에 관심을 보였다. 캐나다는 높은 인건비 등 환경 제약으로 의류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부터 중·저가품, 멕시코, 미국 등지에서 나이키 등 유명 스포츠 의류 제품을 수입하는 구조다. 이번 FTA가 체결됨에 따라 한국産 의류에 부과하던 최대 18%에 달하는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어서, 캐나다 현지 의류업계는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한국産 제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바이어는 편물 의류, 양말(스타킹), 리넨·커튼 등 관세인하 폭이 높고,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위주로 제품 구매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초 캐나다 의류업계의 중간유통업체인 C社는 KOTRA 무역관을 방문해 가죽의류와 양말, 장갑 등 액세서리 품목의 관세변경(가격 인하)에 따른 한국産 제품 수입에 대해서 협의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친환경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LED 조명 등 고효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産 LED 제품이 캐나다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3년간 한국産 제품에 대한 기존 7%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현지 바이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무역관에 인증을 보유한 캐나다의 L社는 우리나라 유망기업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국産과 비교해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한국産 신규 수입 의향을 나타냈다.

아울러 KOTRA는 캐나다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신축과 토목공사가 활발히 진행돼 관련 건설자재 수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시멘트를 수입하는 캐나다 바이어는 무역관에 특수용도 시멘트 등 건축자재 수입처를 문의하며, 캐나다 건축자재 시장의 수요가 수년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품질이 중시되는 플라스틱 바닥재, 알루미늄 창호 등의 품목에서 한국産 수입을 확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 】

▶ 스마트폰 액세서리 플립커버 플라스틱 케이스? 휴대폰 부분품?

1월 16일 '2015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에서 가장 쟁점이 된 물품은 스마트폰 액세서리인 플립커버(Flip Cover)였는데, 이 물품은 앞뒤 덮개(cover), 윈도우 뷰(Window View), 아이디(ID) 칩, 배터리 덮개 등을 특정 스마트폰에 꼭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한 물품으로, 단순한 케이스로 봐 플라스틱 제품(제3926호, 6.5%)으로 분류할지, 휴대폰의 부분품(제8517호, 0%)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지만,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과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해 사용하는 점, 그리고 아이디(ID) 칩을 통해 스마트폰이 덮개(커버)의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하고, HSK 8517.70-1029에 분류했다.

또한 전자책(e-Book)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 리더(Reader)'를 '전자사전(HSK 8543.70-3000, 0%)'으로 분류할지, '기타의 전기기기(HSK 8543.70-9090, 8%)'로 분류할지도 쟁점이었다. 이 물품은 전자책 리더 기능과 전자사전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기로서, 관세율표에서는 전자번역기와 전자사전은 HSK 8543.70-3000에 분류하며, 그 밖의 기기는 HSK 8543.70-9090에 분류한다.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8543.70-3000호의 한글품명은 '전자사전'으로 돼 있으나, 영문품명[정보기술협정(ITA)상 품명]은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with dictionary function)' 기기로 해석하는 점을 고려해, 이 물품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이 있으므로 '전자사전'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뒷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막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했다. 이 물품은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바, 모터,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돼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물품으로, 이를 실내용 블라인드(제6303호, 13%)로 분류할지, 차량용 전기기기(제8479호, 8%)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지만, 모터, 기어 등 기계적인 구성 체계(mechanism)가 블라인드의 단순한 부속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 '차량용 기기'로 결정하고 HSK 8479.89-9091에 분류했다.

이와 함께 크러스트 피자 충전용의 사각 막대형상 치즈를 신선한 치즈(제0406.10호)로 분류할지, 가공 치즈(제0406.30호)로 분류할지도 쟁점이었다. 이 물품은 살균한 우유(92.1%)에 배양균과 응유효소를 첨가해 만든 커드에 변성전분(4%), 소금(2%) 등을 첨가하고 스트레칭 공정을 거쳐 제조한 스틱상의 치즈로, 숙성하지 않고 크러스트 피자 충전용으로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에 첨가한 변성전분과 소금은 치즈 제조과정 중 첨가한 것이므로 '신선한 자연 치즈'에 해당하며, 완성된 치즈에 다른 재료를 첨가·혼합하는 '가공 치즈'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트레칭 공정을 거쳤으나, 제조과정 중에 변성전분과 소금을 첨가한 치즈이므로 모차렐라 치즈로도 분류할 수 없고, '그 밖의 신선한 치즈'로 봐 HSK 0406.10-1090에 분류했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